

제5장 노동자가 목회자로

동석기는 사탕수수농장의 주인, 감독자,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인 조선인 이민 노동자 등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떳떳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농장과 다른 농장의 주인들을 비교하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일하고 있는 농장 주인은 진실한 감리교회 신자이기 때문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른 농장 주인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매우 인격적으로 대해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동석기가 사탕수수농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시작한 지 9개월이 되었을 무렵인 1904년 9월의 어느 날이었다. 동료들로부터 “농장 주인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며, 지금 주인이 당신을 찾고 있으니어서 주인에게 가보라”라는 전갈(傳喝)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인이 나를 찾는단 말인가? 나는 잘못된 일이 없는데, 왜? 보자고 하는 것일까?”라고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 서둘러 주인을 찾아갔다. 이때 그는 농장 주인으로부터 생각지 못했던 전혀 뜻밖의 말을 듣게 된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6.]

“Mr. Dong! 당신은 참 양심적이고 매우 근면(勤勉)하고 성실(誠實)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쉬어 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들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나는 계속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조선인 이민 노동자들을 꾸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워낙 근면하고 성실하며 또 멀리 이국(異國)에 와서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눈감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서도 당신은 단연(斷然) 탁월(卓越)한 일꾼이더군요. 당신의 자질을 내가 조용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런 농장에서 노동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Mr. Dong!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말씀해 보십시오.” [윤세민, 「요셉처럼 살다간 꿈의 전도자」, 178. 참조]

동석기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탕수수농장 주인으로부터 과분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 밖의 제안(提案)을 하므로 이게 꿈인지 생

시인지 어안이 병병하여 처음에는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는 냉정함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나는 처음부터 미지(未知)의 세계에서 더욱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겠다는 각오와 서양 학문(근대교육)을 배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고국을 떠나 노동자의 신분으로 하와이까지 왔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하와이에 온 목적을 달성하는 미래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왔다.”

위와 같이 농장 주인의 제안에 대하여 동석기는 하와이에 온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絶好)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을 굳게 하였다. 그리고 농장 주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용기를 내어 천천히 진솔하게 대답하였다.

“주인님의 호의(好意)에 정말로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갓 노동자에

불과한 주제에 제가 감히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있겠습니까? 마는, 한가지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하와이에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이 물으시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 포기하지 않고 꼭 해보고 싶은 꿈은 바로 서양 학문입니다.” [윤세민, 「요셉처럼 살다간 꿈의 전도자」, 178. 참조]

이때 사탕수수농장 주인은 동석기로부터 “서양 학문을 꼭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매우 흡족해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동석기의 등을 두드려주며 진심 어린 격려(激勵)와 함께 특별한 배려(配慮)를 아낌없이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악수까지 청했다. 즉 사탕수수농장 주인이 동석기의 ‘물질적인 후원자(後援者)와 멘토(mentor)가 되어주겠다.’라고 굳게 약속해주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 Mr. Dong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로 훌륭한 재목(材木)감입니다. 앞으로 내가 당신의 보호자(保護者)가 되어서 당신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뒷바라지를

하면서 보살피 주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당신이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윤세민, 「요셉처럼 살다간 꿈의 전도자」, 178. 참조]

이렇게 사탕수수농장 주인의 특별한 배려로 동석기는 1904년 10월 노동자 생활을 청산(清算)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동석기는 노동자에서 농장 주인의 친지(親知)로 신분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민을 온 목적까지 이를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어 동석기는 공부하기 위해 미국 본토로 가기 직전, 즉 하와이를 떠나기 전에 그의 생애에 대단히 중요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란 동석기가 기독교 신앙을 갖겠다는 고백과 함께 1904년 봄에 부임한 미(북)감리교회 소속 감리사 존 와드맨[Dr. John W. Wadman, 재직기간 1904.~1914.] 박사에게 세례(약식세례)를 받은 일을 말한다. [이덕희(2003), 「하와이 한인들이 하와이 감리교회에 끼친 영향 : 1903~195」, 11;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6.]

여기서 동석기는 “The Harvest Field”에서 자신에게 세례를 집례해준 목사를 “Dr. Waterman”이라고 했기에,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인용해 왔었다. 그런데 필자가 여러 문헌을 살펴본 결과 “John W.

Wadman”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동석기는 과연 기독교를 언제 받아들였을까?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농장 주인의 특별한 관심과 그가 베풀어준 사랑에 감동한 후 그가 믿는 기독교이기에 그저 좋게 여기고 받아들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동석기가 세례를 받게 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동석기가 세례를 받은 것은, 단지 ‘농장 주인이 믿는 기독교라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호기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동석기는 훗날 당시의 심경(心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진짜 세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또한, 천국을 믿지 않았다. 단지 나는 깨끗하고 좋은 도덕(道德)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6.]

동석기는 세례를 받은 후 하와이를 떠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1906년 여름까지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립신보』(1906.2.13.)의 ‘桑港會報告(상항회보고)’라는 기사에 동석기를 상항(샌프란시스코)지방회 학생회 특별회원으로 총회에 보고하였고, 1906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의 지진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어

네브래스카주(Nebraska) 오마하시(Omaha)에 있는 중앙학교(中央學校, Central School)에서 1906년 9월부터 1909년 6월까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를 공부[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과정]하였다. [총독부 관보 이력서]

동석기는 중앙학교를 마친 후 사탕수수농장 주인의 재정보증서와 세례를 집례해준 와드맨(Wadman) 감리사의 입학추천서 덕분에 일리노이주(Illinois) 에번스턴시(Evanston)에 있는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의 법학과(Department of Law)에 1909년 9월 입학하게 되었다. [총독부 관보 이력서] 동석기가 노스웨스턴대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무렵인 1909년 7월 조국 대한제국의 운명은 일제에 강점(強占)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려는 속셈으로 ‘을유각서(乙酉覺書)’를 강요하여 강제적으로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빼앗았다. 이어 일진회(一進會)를 이용하여 ‘조일합방청원서(朝日合邦請願書)’ 즉 ‘조일합방상주문(朝日合邦上奏文)’을 제출토록 하였다. 그리고 1910년 6월 24일(금) ‘경찰 사무위탁 조일약정각서(朝日約定覺書)’를 체결하므로 경찰권(警察權)마저 빼앗아갔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는 1910년 8월 22일(월) 국무대신(國務大臣) 외에 황족(皇族)과 원로들을 강요하여 ‘조일병합조약(朝日併合條約)’안을 토의하도록 하였다.

이어 순종[純宗, 재위 기간: 1907.~1910.]의 윤허를 강제로 받아낸 다음에 ‘조일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910년 8월 29일(월) 순종에게 강요하여 조일병합조약 체결을 근거로 ‘조선의 통치권을 일본 왕에게 양도한다.’라는 ‘조일병합조칙’(朝日併合詔勅)을 발표하도록 하므로 조선(대한제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노스웨스턴대학교(College Inside, 2017.9.26.)

동석기는 노스웨스턴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캠퍼스에서 ‘그로브(Paul H. Grove)’라고 부르는 신학과 학생을 만났다. 그런데 그 만남이 동석기의 앞으로 생애에 극적인 전환기(轉換期)를 맞게 되는 계기(契機)가 될 줄은 동석기 자신도 몰랐었다. 그로브(Grove)는 조선 선교사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회자 후보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먼저 동석기를 불쑥 찾아와 다음

과 같이 진지한 요청을 한 것이다.

“동 형제! 나는 그로브(Grove)라고 합니다. 나는 은둔의 나라 조선(The Hermit Nation Corea)으로 알려진 당신의 조국에 선교사로 갈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므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기도를 부탁하러 온 겁니다. 형제가 나의 선교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때 동석기는 하와이로 떠난 후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부모 형제와 아내, 더구나 일제에 강점되어가는 조국이 떠올랐다. 그리고 외국인 신분인 그로브(Grove)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문득 “나는 나의 조국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또한, 외국인인 그로브(Grove)가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매우 부끄러웠다. 그러나 기도부탁을 받았고,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므로 열심히 그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뿔뿔이 기빠하는 모습으로 그가 다시 동석기를 찾아와서 고백하였다.

“동 형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조선에 선교사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내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던 말입니다. 동 형제, 정말 고맙습니다.” [그로브(Paul H. Grove): 미(북) 감리교회 선교사, 한국 이름 고로부(高路芙), 1910년 내한하여 해주지방 순행 선교사, 1913년 해주읍 남학교 교장, 1914년 원주지방 순행 선교사, 1915년 평양 동북방지방 순행 선교사, 1916년~1917년 해주지방 감리사 겸 연회 서기, 1919년~1920년 수원 지방 감리사, 1920년에 귀국(감리교회 역사자료 검색 서비스).]



개럿신학교(Google, Garrett)

동석기는 ‘그로브’(Grove)로부터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기도를 하는 동안에 사실(事實)은 깊은 영적인 체험

을 하였다. 그런데, 그로브(Grove)를 위한 중보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결과를 확인한 순간 소명(召命) 의식이 마음을 감싸면서, “나도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1911년 9월 전공(專攻)을 법학(法學)에서 신학(神學)으로 변경(전과)을 하였다. [총독부 관보 이력서] 동석기가 전과(轉科)할 당시 신학과는 노스웨스턴대학교 ‘개렛신학교(Garrett Theological Seminary, 현 개렛신학대학원)’라고 했다. 그는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여 1913년 6월 신학사 학위(B. D.)를 받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하여 동석기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사탕수수농장에서 9개월을 일하면서 보냈으며, 그곳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흡연(吸煙), 음주(飲酒), 도박(賭博) 및 기타 나쁜 습관을 버렸다. 그것들을 그만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내가 고향 집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나는 하와이섬을 떠나 미국에 가기 전에 감리교회 감리사인 와드맨(Wadman) 목사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다…….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고 불이 났었다. 그 당시 나는 정말로 회심(回心)했으며 성서가 말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성서의 진리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다. 나는 감리

교회에 소속된 학교인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공부하려고 일리노이주의 에번스톤에 왔다. 나는 그 대학교에서 오직 감리교주의(Wesleyanism)만을 배웠다. 나는 개혁신학교에서 B. D. 학위를 받았으며, 그 후 1913년에 감리교회 전도사로서 조선에 돌아왔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6.]

동석기가 언급한 지진은 1906년 4월 18일(수) 새벽 5시 12분 북부 캘리포니아(California) 해안을 강타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큰 지진과 더불어 며칠 동안 화재가 지속하였던 지진을 말한다. 이 지진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지진으로 최소 3,000여 명이 희생되었고, 샌프란시스코의 80%가 초토화(焦土化)되었으며, 22만 5천 명에서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피해액은 4억 달러로 추산되며 보험업계의 추산으로는 2억 3천5백만 달러(2005년의 가치로는 49억 달러에 해당)라고 하였다. [『위키백과사전』,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당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처절하게 울부짖는 아비규환(阿鼻叫喚)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동석기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切感)하면서 다음과 같은 체험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는 체험을 통해 회심(回心)하므로 그리스도의 말

썸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

“과학이 발달 된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이 발달시킨 과학의 힘으로도 지진을 막아낼 수 없단 말인가? 아!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누가 과학의 힘과 지진의 힘보다 더 무서운 능력이 있을까? 인간은 아니다. 그렇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6. 참조]

동석기가 신학을 공부한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1913년 6월에 그는 꿈에도 소원하던 학사모(學士帽)를 쓰고 개렛신학교를 졸업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멘토(mentor)인 사탕수수농장 주인의 입을 통해 동석기의 신학교 졸업 소식이 주변에 알려졌다. 그러자 동석기의 이력을 알고 있거나 그를 응원했던 미(북) 감리교회 소속 교회들이 전도사로 청빙(請聘)해가려고 줄을 섰었다. 이때 농장 주인은 기쁨에 차 상기되어 있는, 동석기를 만나 다음과 같이 끈질긴 설득을 하였다.

“동 전도사님!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으므로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심사숙고(深思熟考)하여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는 미(북) 감리교회 소속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안수받고 목사가 되어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으로 목사가 되는 일이 부담스럽다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학원에서 학문을 계속한 후 박사학위를 취득(取得)하여 교수(professor)로 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대학원을 진학하겠다고 하면 나는 계속해서 당신의 후원자가 되어 도움을 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윤세민, 「요셉처럼 살다간 꿈의 전도자」, 178. 참조]

동석기는 사탕수수농장 주인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음에도 그 즉시 시원스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 남아 미(북) 감리교회 소속 교회의 청빙을 받아 목회자의 길을 갈까?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교수가 되어 미국에 정착할까?”라고 농장 주인의 제안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는 농장 주인의 두 가지의 제안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식민지배(植民支配)를 받는 조국과 고통받는 동포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조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탕수수농장 주인의 제안을 놓고 몹시 애를 태우며 깊은 생각에 골몰(汨沒)하던 동석기는 농장 주인을 찾아가서 귀국을 결심하게 된 배경(背景)을 차분하게 설명하였다. 동석기로부터 ‘조국에 귀국하겠다.’라는 결심을 확인한 농장 주인은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그의 결심을 존중해 주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주라.’는 농장 주인의 당부를 마음에 담고서 1913년 10월 16일 (목) 귀국길에 올랐다. 이때 동석기의 귀국 소식이 『신한민보』(1913.10.24. ‘동씨 귀국’)에 보도되었다.

“미국 동부(Eastern United States)에서 신학을 졸업한 동석기 씨는 1913년 10월 16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항에 도착하여 그 이튿날 퍼시아(Persia, 러시아) 선편에 귀국하였다더라.”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宣敎)는 일본 주재 미(북) 감리교회 소속 선교사인 매클레이[Robert S. Maclay, 맥리화(麥利和), 1824.~1907.] 목사가 1884년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조선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클레이(Maclay)가 김옥균(金玉均)을 통해 전달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고종 황제께서 7월 4일 “미국인들이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일,

전신(電信) 설치의 일을 허락한다.”라는 윤허를 내리므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종의 허락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직접 선교’가 아닌 ‘의료선교(선교병원설립)’와 ‘교육 선교(학교설립)’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간접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뿐이었다.

이렇게 제한된 이유로 인해 초기에 내한하여 활동했던 미국인 선교사들의 공적인 신분은 기독교 ‘선교사(missionary)’가 아닌 가르치는 ‘교사(teacher)’의 신분이었다. 또한,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교육(education)’과 ‘의료(medical)’ 사업에만 종사하도록 한정되어 있어서 운신(運身)의 폭도 매우 좁았었다. 그렇지만 고종의 윤허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 교파형 교회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 조선 선교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도 파송하였다.

가장 먼저 1884년 7월 미국 북 장로교회 선교부는 청나라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있던 의료선교사 알렌을 미국 공사관 공의(公醫)의 신분으로 파송을 결정하였다. 그러자 알렌은 9월 20일 내한하므로 최초 외국인 내한 선교사로서 조선 선교를 전개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미(북) 감리교회에서는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 아편설라(亞扁說羅)] 선교사 부부를 파송하므로 부활주일인 1885년 4월 5일 오후에

제물포[濟物浦, 인천]항에 도착하여 조선 선교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미(북) 감리교회가 조선 선교를 시작한 지 28년째 되는 해인 1913년 11월 초 동석기 전도사는 대한제국이 아닌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轉落)한 조국 조선에 귀국한 것이다. 동석기는 1903년 하와이로 떠날 때는 ‘사탕수수농장의 노동자’ 신분이었으나 10년 만인 1913년에 귀국할 때는 미(북) 감리교회 소속 목회자의 한사람인 전도사(傳道師) 신분으로 귀국하였다.



『Gospel advocate(복음옹호자)』(1931.9.3.)[그리스도의교회 연구소]